

- 본문 : 창세기 13장 14~18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제목 : “풍요가 시험이 아닌 복이 되게 하라”

· 본문 읽기

-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 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질은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게 하고, 또는 이 사회를 운용하는 필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 물질이 많으면 물론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물질 위에 있는 먼저되어야 할 가치들이 훼손되는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로 생명을 훼손 하거나, 가정의 불화와 같은 일로 절대적인 가치들이 밀려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풍요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물질관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풍요가 시험이 되지 않도록 절대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일로부터 자유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도입질문

- * 온유한 사람은 더 귀한 것이나 중요한 것을 위해 작은 것(눈 앞의 소욕)을 포기합니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눈 앞의 소욕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아브람과 롯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13:8~9)
2. 아브람과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선택한 물질에 대한 자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13:10, 14)

· 느낀 점

3. 아브람이 자신의 눈 앞에 있는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4.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앞에서도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는 아브람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 적용

5.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바른 현금생활과 바른 물질 생활을 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물질 생활을 결단하고 나누어 봅시다.